

감성의 현안 탐구를 기반으로 한 접경의 교류 방안 : 소통 프로그램 설계 수업의 운영 사례와 그 참여 효과를 중심으로*

최혜경**

| 목 차 |

- I. 들어가며 : 경계 의식의 전환 혹은 활용
- II. 공론·공감의 경계 초월적 장 구성 : 학술-일상의 연계 방안으로서 대학 수업
- III. 감성의 현안 탐구와 해법 모색의 참여 효과 : 소통 프로그램 설계 수업의 실제
- IV. 나가며 : 발화하는 존재, 이동하는 경계

국문초록

이 연구는 경계의 양가적 기능에 주목하면서 출발한다. 접경이 자아와 타자의 충돌이나 주변부의 발생만 야기하는 것이 아닌, 타자나 지역 간 횡단과 문화교류를 통해 분권과 변용을 실현할 동력의 발생지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20세기를 관통한 미래주의와 합리적 이성중심의 발달사관에 따라 서구 유럽과 비유럽,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중심-주변의 의식적 구조를 구축하고 단순 이원화된 분기를 거듭해 온 지역 의식의 계층화를 문제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불통에 관한 문제의식에 더해, 소통에 관한 무력감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는 시점에 놓여 있다. 이러한 시대의 현안으로 횡단과 접촉의 방

* 이 논문은 201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에 의한 것(2018S1A6A3A01080752)이다. 귀한 학술지면을 빌려 연구와 소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 글에 대한 섬세한 제언과 아낌없는 질의를 보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고개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린다.

** 전남대학교 HK연구교수, chk@jnu.ac.kr

법론적 탐구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테면 이질성을 지닌 문화 간 소통의 방식을 모색하며 그 실현과 체험적 효과에 대한 자료의 일군을 이루어 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C대학의 소통 프로그램 설계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그러한 공동연구와 사회적 환원의 장을 구상하고 효용성을 예비 검토하고자 하였다.

즉 이 글은 내적·사회적·이문화간 대화와 소통을 체험하기 위한 요구가 자발적 필요와 특수한 삶 데이터에 기반하여 발현될 때 어떠한 구현 양상을 드러낼 수 있는지 사례를 확인하고 그것의 다층적 소통 효과를 살펴보는 과정이 될 것이다. 본문에서는 모종의 소통 프로그램을 설계한 수업 참여자들이 이 과정으로부터 어떠한 자기성찰적 사유와 변화의 계기를 얻고 상호 토론 및 참여를 통한 다양한 접촉과 소통의 효과를 도출하게 되었는지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각 지역의 대학을 수업의 장소에서 나아가 지역민 내지 지역 간 발화와 소통의 집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확장적이고 환원적인 대학 기능 구상의 전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소통, 지역학, 경계, 횡단성, 감성, 프로그램 설계

I. 들어가며 : 경계 의식의 전환 혹은 활용

경계는 모종의 기준과 가치를 설정할 수 있는 판단력과 그 발현의 그 결과로 만들어진 의식의 성질을 둘 이상의 개체가 나누어 가질 때 비로소 효력을 발휘한다. 이 경계는 관념과 의식, 감성이나 동기와 같은 비물질적 측면의 행동 자원에 의해 뒷받침될 때 잠정적으로 통용되는 규칙과 같다. 경계는 인간의 표상 공간에서 임의로 약속하거나 설정한 가치의 기준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새로이 태동하고, 힘을 겨루는 감성의 운동 양상에 따라 이동하거나 변화한다. 또한 사회문화라는 거시적 관념 속에서 경계 의식은 중심으로서 자아와 그 바깥으로서 타자를 구별하며 이원화된 구조를 생성하고 지속적으로 작동시키는 주요한 조건이 되기도 하다. 비록 잠정적일지라도 유효한 경계 의식은 생산 도구와 물질 자원을 다루는 중심부로부터 주

변부를 변별해내는 권력을 지원하며 경계 바깥을 배제하거나 응집시키는 양방향성의 동력을 지닌다.

이처럼 경계는 관념적이고 잠정적이며 이중적인 속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불완전한 규약이다. 하지만 동시에 경계는 수없이 다양한 개인과 특수한 서사의 공간들을 직조하며 불완전한 상태에서부터 변용과 창조를 선도하는 조건이 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경계는 일체성을 다양성으로 변모시키는 과정의 첫 단계인 분리·분할을 가능케 한다. 가령 태아는 모체로부터 분리되면서, 서로 다른 시각과 시야를 지니고 상이한 방향으로 운동할 수 있는 또 다른 개체로 내적 세계를 부여받는다. 본디 하나였던 것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되었을 때, 행동의 범주와 가능성은 분기를 거듭하며 증폭되는 쪽으로 나아간다. 일체화된 상태에서 결핍과 취약성이 전체적으로 전이되며 소멸과 기형을 일으키는 경우라면 경계 너머로의 이동과 분할은 불가피한 생존 전략이 되기도 한다. 인간의 사유 공간 속에서 이처럼 어떤 존재를 인식하고 대상으로 분별하도록 하는 동시에 접촉과 만남의 맨 앞자리가 되어 상호작용과 관계맺음의 행위 속성을 결정하는 ‘경계 의식(border thinking)’. 이것은 우리 인간을 사회적으로 교류하고 존재하도록 하는 데 양가성을 지닌 도구적 개념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박완서의 소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1992)¹⁾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세태 속 성내(서울) 진입을 위한 악착같은 교육열과 함께 그것의 감정적 토대가 되는 집착과 서러움을 엿볼 수 있다. 바로 당대 한국 사회의 시대상과 서울 근교의 장소성을 공유했던 이들의 경계 의식이 이러한 감성과 행위에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는 동인이라 할 수 있다. 가문의 계승과 집안의 가치 보전을 과업으로 삼고 성공의 관념적 매개물로서 성내를 지향하던 이들에게 서울 안팎의 경계는 배제와 포섭의 이중성을 지니는 접촉 지점

1)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웅진주니어, 2004, 1~284쪽. 이것은 작가의 자전적 성장소설로 송도에서의 어린 시절부터 10대의 일제 강점기, 해방과 6·25전쟁 시기를 함께 거치던 어머니의 생애와 가족사를 그린 작품이다. 한국 근현대민족사의 단면을 살필 수 있는 실증적 자료의 성격도 지닌다.

이 된다. 한편 비판적 지역학자 메자드라(Sandro Mezzadra)와 닐슨(Brett Nielson)은 전지구화 시대 새로운 공간성 창출을 위한 학술적 사유를 전개 하면서 경계가 “사람들을 선별하고 거르는 포섭의 장치이며 상이한 순환의 형식이기도 하다”²⁾는 점을 표명한다. 이들은 경계가 인간이나 그 환경으로서 지역을 보편적인 존재로도, 특수한 다양성의 총체로도 가정하지 않은 채 차별적 포섭이라는 방식으로 시장경제를 작동시키는 한 관념적 조건이 되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그러나 동시에 경계로부터 발생하는 운동성이나 다종의 방향성에 함의된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경계의 ‘양가적 기능’³⁾에 주목하면서 출발한다. 접경이 자아와 타자의 충돌이나 주변부의 발생만 야기하는 것이 아닌, 타자나 지역 간 횡단과 문화교류를 통해 분권과 변용을 실현할 동력의 발생지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20세기를 관통한 미래주의와 합리적 이성 중심의 발달사관(發達史觀)에 따라 서구 유럽과 비유럽,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중심-주변의 의식 구조를 구축하고 단순 이원화된 분기를 거듭해 온 지역 의식의 계층화를 문제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원화된 계층적 지역 의식은 시장 자본의 경제 원리와 결합하면서 물질 자원의 편중과 삶의 질적 계층화를 파생시켰을 뿐 아니라 제도·문화 등 또 다른 비물질 층위를 재구조화하는 데 헤게모니를 지니며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

-
- 2) 산드로 메자드라, 브렛 닐슨, 『방법으로서의 경계』, 남청수 역, 갈무리, 2021, 30쪽.
 3) 경계에 관한 한 연구에서는 둘 이상의 영역이 서로 만나는 지점으로서 경계가 단지 두 영역 사이에 머무는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언술한다. 경계적 사유라는 것을 두 영역을 함께 보는 인식론적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 따라 마음이 곧 경계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안하기도 한다(박만준, 「지식의 융합과 경제적 사유」, 『철학연구』 제116권, 대한철학회, 2010, 122~123쪽). 변경과 국경에 관한 연구를 집적해 온 테사 모리스-스즈키 역시 경계는 지도로 이름 붙이거나(mapping) 바뀌 부르며(re-naming) 영토를 전유하는 순간 마음에서 창조되는 것이라 말한다. (테사 모리스-스즈키, 『변경에서 바라본 근대: 아이누와 식민주의』, 임성모 역, 산치럼, 2006, 24쪽.) 이들의 언술은 경계를 인식하는 이 글의 관점과 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계의 변화하는 성질로서 운동성, 그리고 분할하거나 융합하는 힘의 방향이 예측할 수 없도록 빈번하고도 다양한 방향으로 발휘되는 속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역의 가치를 고정된 로컬리티로 인식하고 지구적 문화를 체계적 구조로 판별하여 행위의 방향과 내용을 예상하는 것은 효율성 원리를 토대로 폭발적 성장을 이루어 온 역사적 흐름 속에서 불가피한 작업이었을 수 있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지점은 그러한 발달사적 흐름 속에 자리 잡게 된 지역 정체성이나 오래 보존되어 온 전통적 가치의 탐구 작업으로서 지역학에 대한 비판적 재평가에 있지 않다. 오히려 전통적 지역학의 연구 성과로 적층되어 온 지역의 서사와 감성, 기억과 기록과 상징들을 더욱 정밀하게 살피고 활용할 필요성을 전제로 둔다. 즉 이 글은 전통적 지역학의 토대 위에 세워진 지역 인식과 문화가치 등을 객관화하여 바라보고 비판적 지역학의 담론에 비추어 의미 변용을 경험한, 그 이후의 논의이다.⁴⁾

이 연구에서는 비판적 지역학의 견지를 지니고 출발하는 한편, 저항 담론의 측면을 포괄하며 대안적이고 방법론적인 탐구에 주안점을 두고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현재는 지역의 계층화 등에 관한 비판적이고 저항적인 사유가 담론을 구성하는 단계를 넘어 체험 속에 가시적으로 확산되는 시기에 도달해있다. 인구와 문화의 편차를 고려할 때 한국 사회는 비수도권 소멸이 곧 총체적 문화자원의 축소와 재생산·유통 구조 파괴로 인해 중심의 소멸 위기로 환원될 우려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계층화와 경계 의식에 대한 조명과 인식의 전환이 급선무이고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 모색과 실행 활성화가 1안이 되어야 할 것으로 여긴다.

접경은 분할의 상징이자 배제와 포섭의 양가적 힘이 작동하는 실체적 장

4) 비유하자면 비판적 지역학은 전통적 지역학의 가옥에 사방으로 낸 창과 같다. 지역의 자연적이고 사회문화적인 환경에 착근한 이들의 삶을 지속하고 일상이 작동하는 구조를 보완하며 생태를 보전하기 위한, 그 궁극적 지향과 학술연구 목적에 있어 두 지역학 층위는 밀착되어 상호작용하는 연관성을 지닌다. 비판적 지역학이라는 창은 당면한 삶이 펼쳐지는 마당 혹은 뒤안으로서 현재의 지역을 통찰하는 동시에, 여행 자적 탐색과 성찰적 시간을 제공하는 사립문 너머 마을 길로서 미래의 지역을 전망하도록 한다. 그것이 제공하는 시좌와 사유를 통해 지역의 생태 일부로서 각 개인은 지역의 경계나 고착화된 계층 의식으로부터 때로 벗어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소이며 접속의 실천 방안을 구상할 수 있는 실증적 토대이기도 하다. 또한 상이한 의식과 발화가 체험으로 적층되어 상호 번역과 이해의 단계로 나아가 갈 비계가 되기도 한다. 이 같은 사유를 전제로 본고에서는 접경의 접속 방식에 초점을 두고 교섭의 실현 방법 구안과 그것을 적용할 실천 단계의 예비검토를 논점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것은 지금까지 박물학적 탐구와 아카이빙, 오래된 문화유산의 의미 발굴과 현재화, 의례화된 지역문화 구조와 전승되어 온 사유의 비판적 재구성 등을 요체로 했던 지역학 연구의 범주를 토대로 삼아 이를 융합적이고 대안적인 측면에서 확장하며 지역학과 지역 삶의 새로운 지평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이다.

주지하듯 오늘날은 그 횡단적 접속의 범위가 유례없이 경계 초월적으로 나타나는 전지구화 시대이며 1인 미디어를 통한 발화 창구의 양적 폭발과 기호 자본 시장의 거대한 영향력,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질적 변화가 인식의 속도나 정도를 앞서고 있다. 삶의 질적 계층화가 광범위한 로컬 범위에서 생존 의식과 경쟁의 문화를 과도하게 자극하면서 지역 간 이문화(異文化) 의식과 차별성이 젠더, 세대, 직종 등 또 다른 층위에 전이되고 배제와 소외에 대한 두려움을 낳고 있기도 하다. 2020년 이후 COVID-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비대면 교류 기술을 발전시키고 디지털 공간의 소통문화에 대한 새로운 집중을 불러일으킨 이면에는, 감성의 측면에서 진화를 거듭해 온 소통과 표현의 역량을 지금 이곳의 각 관계 속에서 발휘하는 데 지나친 조심성과 위축감을 생성해낸 부적 측면도 있다. 불통에 관한 문제의식에 더해 소통에 관한 무력감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는 시점인 것이다.

이러한 시대의 현안으로 횡단과 접속의 방법론적 탐구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테면 이질성을 지닌 문화 간 소통의 방식 모색과 그 실현, 체험적 효과 등이 질적 분석을 거듭하며 자료의 일군을 이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려 할 때 대학의 교육 현장은 각 지역 혹은 지역의 각 장소에 착근한 삶의 데이터를 다양한 요구와 정체성으로 내보이는 이들의 집결지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사회적 공간으로서 대학은 다채로운 삶의 요구와 방식에 기반을 둔 저마다의 소통 방법을 구상하고 그

실증적이고도 일상적인 적용을 모의하며 후과를 공유할 수 있는 공동연구-장이 될 수 있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C대학의 소통 프로그램 설계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그러한 공동연구와 사회적 환원의 장을 구상하고 효용성을 예비검토하고자 한다.

즉 이 글은 내적·사회적·이문화간 대화와 소통을 체험하기 위한 요구가 자발적 필요와 특수한 삶 데이터에 기반하여 발현될 때 어떠한 방법론적 구상과 구현 양상을 드러낼 수 있는지 사례를 확인하고 그것의 다층적 소통 효과를 살펴보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모종의 소통 프로그램을 설계한 수업 참여자들이 이 과정으로부터 어떠한 자기성찰적 사유와 변화의 계기를 얻고 상호 토론 및 참여를 통한 다양한 접촉과 소통의 효과를 도출하게 되었는지 분석하기로 한다. 즉 다양한 삶의 현안을 주제로 다루는 공론과 공감의 장으로서 소통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수업의 기획과 운영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로부터 수업 참여자들이 다양성이 평가되거나 제한되지 않은 발화와 표현의 기회를 만났을 때 중심-주변으로 이원화된 사고의 경직성으로부터 벗어나 삶의 '자기서사화'⁵⁾와 경계 초월적 발화의 기회를 스스로 창출해내는 과정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각 지역의 대학을 수업의 장소에서 나아가 지역민 내지 지역 간 발화와 소통의 집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확장적이고 환원적인 대학 기능 구상의 전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의 교육프로그램이 확장된 공공성을 지니며 지역의 경계 인식 변용과 횡단적 소통을 위한 방안으로 기능할 가능성 및 효용성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지

5) 이 '자기서사'는 한국문학치료학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사용되며 현재 인문학, 지역학, 감성학, 커뮤니케이션학 등 폭넓은 범주에서 통용되는 도구적 개념이다. 문학치료학의 관점에서 정운채는 이 자기서사를 '인간의 삶 이면에서 인생을 떠받치고 운영하는 서사를 가리킨다고 설명한다(정운채, 「문학치료와 자기서사의 성장」, 『우리말교육현장연구』 제4권 2호,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010, 9쪽). 창조된 문학 텍스트가 지니는 작품서사와 인간의 자기서사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역동적이고 개선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작업이 곧 문학치료인 것이다. 이러한 문학치료 영역을 비롯하여 자기서사는 경직된 구조와 한계를 벗어나도록 전환을 모의하는 포괄적 범주에서 행위 전후(前後)의 양상을 가리켜 논의할 때 유용한 개념이 되고 있다.

역 생태 속에 당면하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술연구와 교내외 교육, 사회적 일상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문제와 요구)분석-설계-개발-실행-평가-보완’의 전 과정을 협업 체계 속에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그러한 사회적 협업의 한 방식을 제안하는 동시에, 분과별 학술 성과를 선순환구조 속에 공동 자원화하기 위한 모색에 있어 한 참조 지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긴다.

II. 공론·공감의 경계 초월적 장 구성 : 학술-일상의 연계 방안으로서 대학 수업

현재 우리 사회에 내재한 경계 의식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기 위한 공론화의 과정이라든지 전환을 위한 작업에서 우선으로 중시해야 할 지점은 ‘우리가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가’ 하는 저항 대상의 판별이 아니라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하는 자기성찰적 물음을 던지고 그 답을 함께 확인해가는 과정에 있다. 흥미롭게도, 경계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차별적 포섭은 실제로는 그것에 대한 비판적 이해보다는 냉소적 수용 내지는 능동적 체화의 양태로 나타나곤 한다. 메자드라와 닐슨은 “세계의 경계구역에 거주하는 인물들이 사회 말단부에서 연명해가는 주변적 주체가 아니라 공간, 시간, 사회적 자아의 물질성을 구성하는 드라마 속의 주연”⁶⁾이라는 확신을 주는 일종의 의식적 장치로 이 차별적 포섭을 들어 이야기한다. 한편 대안적 논의의 맥락에서, 이들은 차별적 포섭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뛰어넘어 경계 내부를 구성하는 다양한 자원과 인적 관계를 평행한 또 다른 경로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구성하고 사용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이것은 곧 경계의 속성을 포섭과 배제의 간극 속에 한정하거나 경계의 현재 구조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그것이 지니는 다공성을 활용하려는 질적 변환의 발상이라 할 수 있다.

6) 산드로 메자드라, 브렛 닐슨, 앞의 책, 239쪽.

이 경계의 질적 변환은 이를테면 다음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는 경계를 넘나들어 자리한 곳의 장소성을 새롭게 구성하는 삶-주체의 신체적 이동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 거주자로 지녀 온 일상의 패턴 이라든지 지역민으로서 정체성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의식적 네트워킹이다. 의식적 네트워킹은 디지털 공간 속에서 체계적으로 구조화된 텍스트나 이것을 둘러싼 공론과 공감의 표명 행위, 소리 없는 일방적 관찰, 수치화되거나 이미지로 나타나는 비언어적 응답 내지는 무응답 등을 두루 포괄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종의 문화와 관념 등은 때로 가벼운 수다의 형태로 자유롭게 탈착하고 네트워킹의 대상과 범위를 달리하며 관계를 구성한다. 이 가운데, 실제로 같은 지역의 생태를 공유하며 살아가는 구성원들로부터 이질적 경계 의식의 분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메자드라와 닐슨은 이 경계의 이중성을 만드는, 달리 말해 포섭과 배제에 관여된 통치성의 변화와 규범적 질서의 다양성을 이루는 경계짓기 기술의 예로 “영토의 일부를 잘라내도록 결정하고, 잘린 영토들이 자본 축적의 지역적·전지구적 회로에 개방되는 방식”⁷⁾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들은 “환대와 환영의 윤리가 현대 세계의 모든 경계에서 요구되는 자본의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지 않음”⁸⁾을 천명하면서도 경계를 통해 구성되고 재생산되는 사회적 관계의 성질에 주목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시하는데, 이것은 경계를 초월하며 이루어지는 소통의 장 구성을 위한 연구와 그것의 사회적이고 일상적인 환원을 위해 어떠한 수행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한다. “누구의 방법인가, 자본의 것 아니면 당신의 것?”⁹⁾ 그들은 이 같은 질문이 분명 이중적인 대답을 끌어낼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감성과 지역횡단을 키워드로 삼아 비판적 지역학 이후의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에서는 이중적 또는 양가적인 측면에 머물러 있지 않을 곳에서 답해야 할 것이다. 다의성, 이중성(異種性), 허구적 속

7) 산드로 메자드라, 브렛 닐슨, 위의 책, 345쪽.

8) 산드로 메자드라, 브렛 닐슨, 위의 책, 405쪽.

9) 산드로 메자드라, 브렛 닐슨, 위의 책, 405쪽.

성 등 인식의 측면에서 경계의 개념에 반문하고 탐구하며 이로부터 지역과 인간의 횡단적 연결을 위한 경계의 형태를 새롭게 상상하는 작업이 그 답을 궁리하는 일 단계라 할 수 있다.

위의 질문이 시사하듯 계층화된 지역 인식이나 고착화된 경계 의식을 벗어난 횡단적 접속과 소통을 위한 연구에서는 경계를 일종의 ‘구성주의 프로젝트’¹⁰⁾의 실험장으로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접경의 자리에서 이질적 감성과 인식을 발화로 표명하고 그것의 독해와 문화적 번역을 통해 경계의 중첩된 영역을 확장해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학교, 지역, 세대, 국가, 민족, 성별, 직업 등 포섭과 배제의 동력이 작동하는 수많은 경계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다종의 경험과 의식을 반추하며 한곳에 모여 발화하는 접속의 장소(liminal zone)와 그 구성의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번역과 피드백을 거듭하며 경계의 질적 변환을 꾀하거나 경계짓기의 새로운 기술을 계발하는 것은 그 계기 마련 이후에 가능한 작업이며, 이 장에서 구안한 수업의 사례는 접경을 구성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화와 연결’을 수행하는 한 방안이다.

우선 이 수업은 감성인문학 분야의 공동연구를 삶의 현실과 사회적 관계망 속에 적용하며 환원성을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그리고 ‘학술-일상’의 순환적 연계 방안을 확보하며 이후 수행적 연구로서 실효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측면에서 구안된 사례이다. 이 같은 배경에서 이 수업은,

10) 차크라바르티는 “지배적인 메트로폴리스의 역사들과 서발턴적인 주변부의 과거들 사이, 일종의 동맹의 정치와 기획의 가능성”을 ‘유럽을 지방화하기 프로젝트’라 부르도록 제안한다. 그는 근대성, 자유주의적 가치, 보편들, 과학, 이성, 거대 서사 등에 관련한 서발턴티티의 투쟁과 도전이 학술적 논증이나 예술적 상상의 영역에만 머물 수 없으며 어떤 인식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것은 ‘유럽=근대성’이라는 등치 인식이 유럽 제국주의만이 아닌 제3세계 민족주의의 지원에 힘입어 구성된 것이라는 역사적 재이해를 가리킨다(디페시 차크라바르티, 『유럽을 지방화하기: 포스트식민 사상과 역사적 차이』, 김택현·안준범 역, 그린비, 2014, 114~116쪽). 그의 언술들은 그 프로젝트가 문화적 상대주의나 중심성에 대한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담론의 교차에 참여하는 것, 즉 접경의 발화 행위와 같은 실제적인 표현과 교감과 이해를 통해 추동력을 지닐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읽힌다.

사회적 감성의 속성과 역사적 작동 사례에 대한 여러 분석적 탐구를 아우르며 제기된 ‘공감장 이론’¹¹⁾에 토대를 두고 여러 감성인문학 관련 논저들을 발화의 주요한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이 수업에서는 경계를 초월하는 글로컬 시대의 인식 속에 지역의 삶 공동체 속에서 공적(公的) 문제의 해결을 선도해나갈 지성인의 핵심역량으로 ‘감성적 소통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한 목표를 설정하고 문제중심학습과 프로젝트기반 협업 방식을 병용하였다.

- 1) 감성적 소통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그것의 역할과 특성을 인문학의 복합적 측면에서 탐구하여 자신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 2) 단절과 불통에 연관된 사회적 현안이나 개인의 일상 속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의 해결을 위해 개별 또는 팀별 전략을 적극 수립할 수 있다.
- 3) 한 문제적 사안을 계기로 각기 다른 비판적 견해와 전문적 역량을 집결시키는 경험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연구공동체의 집단적 문제해결과정을 체화할 수 있다.

사회적 공감과 표현에 관한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탐색을 시도하면서 궁극적으로 감성의 측면에서 지역과 사회조직을 새로이 이해하며 변화의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게 되는 것이 수업의 의의를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지향점이다. 급변하는 글로컬 시대에 지역·세대·인종·젠더·직종·문화별 층위를 횡단하며 소통할 수 있는 공감과 표현의 능력, 그리고 각각의 연구자로 하여금 언어와 관념 등에 의해 단절된 관계의 경계를 평화롭게 연결하며 연구공동체의 집단적 역량을 발휘하게 하는 감성적 네트워킹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 역시 이 수업이 지향하는 또 다른 지점들이다.

이 수업은 감성인문학 분야의 공동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C대학

11) 전남대학교 감성인문학연구단, 『공감장이란 무엇인가: 감성 인문학 서론』, 길, 2017, 11~124쪽.

의 대학원핵심역량교과로 개발되어 전공 및 계열과 무관하게 석·박사과정 연구자들이 공통으로 수강할 수 있는 교양 과목으로 운영되었다. 그래서 수업의 참여자는 다양한 각 전공 영역에서 학술연구의 주체이자 사회구성원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불통의 문제를 인지하고, 문학예술·역사·철학·사회문화의 측면들을 융합한 감성인문학의 공감장(共感場) 속에서 다양한 소통의 기술을 습득하거나 발굴하게 된다. 프로그램 구안 경험이나 전공 영역과 무관하게 이 수업에 참여하며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은 감성에 관한 보편적 경험과 이해, 그리고 인문학적 접근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언어적 소통 시간에서 비롯된다.

수업의 전 과정은 이러한 상호 경험과 소통적 이해의 결과로, 어떤 지적 구성물이나 도제적 체험을 예비하고 있지 않다. 교수자를 비롯한 분반 구성원의 교차 피드백 그 체험 자체가 수업의 핵심이기 때문이며, 감성과 언어를 매개로 하는 그 상호작용 속에서 일상의 체험적 견해가 긴밀하게 공유되고 수업 현장에서 벌어진 그 공명의 시공간 체험이 또다시 자기서사의 일부로 적층된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전공 영역의 경계를 넘나들어 삶의 환경자원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지역 구성원으로서 이중의 경계 의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 중심 수업 방식은 참여자 자신의 삶 요구와 문제의식, 혹은 자신의 경험적 지혜와 학술적 전공 지식에 기반을 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안하는 데 동기를 부여한다. 이로써 융합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각 참여자에게 사회적 발화의 기회를 제공하게 됨은 물론이다.

한편 이 수업에서 무엇보다 새로운 경계 의식 체험과 상호 연결을 위한 수단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이유는 대학의 수업 현장이 사회와 개인의 일상에서 당면하는 여러 문제들을 공적이면서도 진솔한 대화의 환경 속에서 재체험하거나 재인식할 기회의 장소로 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감성과 인식의 재구성을 위한 공론과 공감의 장소를 개발하는 것, 그것은 이 수업을 구안한 배경이자 필요성이기도 하다. 오늘날 학교, 군대, 직장과 같이 크고 작은 조직적 관계나 가족, 이웃, 연인들과 같은 자연적 관계 속에서 다발하는 소위 ‘갑질’ 폭력이나 감정 폭력은 사회적 정서를 경직시킬 뿐만

아니라 연쇄적 혐오 발생을 부채질하는 심각한 현안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당사자로서 각 삶의 주체는 실제 문제 해결의 참여자가 되지 못하고 관찰자로 머물거나 각자도생하는 형편이다.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산업과 자본의 발전을 위해 성장 일변도로 지나온 합리적 이성 중심의 근세기가 불균형한 진화의 한계점에 다다랐음을 나타내는 징표이기도 하다. 현재의 삶, 지금 이곳을 직시하지 못하고 포섭과 배제의 불안정한 동력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한 맹목적 노력이 성찰의 시간과 감성적 탐색의 힘을 무의미하게 만들어왔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불균형의 극대화과 심화를 해소하기 위한 제언으로 감성적 근대성에 관한 한 연구에서는 “지역의 정체성을 생산, 분배, 조직해온 담론 안에서 오랜 시간 동안 무의식중에 길들여진 연구자의 습관적 신체 체계에 대한 비판적 반성”¹²⁾을 강조한다. 더욱이 인간의 신체 능력을 분리된 사물에 확장시키며 혁명적 네트워크 기술을 통해 원거리의 지역 또는 인간-사물의 관계를 횡단하게 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인간의 감성적 소통 능력을 갱신하며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활용하기 위한 과제가 요구되는 중이기도 하다.

현재 통신 기술이나 교통의 발달, 전 방위적 방역체제 운영 등에 의해 인간의 사회적 관계가 비대면 방식의 측면에서 확장되는 한편으로, 경험적 관계의 범위는 전문적 분야별로 구획되어가는 측면이 있고 가족과 같은 밀접한 상호 성찰적 관계 역시 협소화되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 관계의 체험 범위가 국한되거나 축소되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수직적 위계의 행동 방식이라든지 소통의 부재에 의한 단절감은 상호 몰이해의 차원에 앞서 네트워크의 동기마저 무력화할 수 있다. 학술조직체 안에서 불통의 양상이 연구 인력의 분과 경계를 넘나드는 융합적 네트워크를 저해하고 그로 인해 창의적 실행력을 기화하게 되는 경우 역시 주의해야 할 지점이다. 학술연구의 행위가 그 성과의 총체적 환원 대상인 사회와 현실적 연결성을 잃고, 추상적 지위를 쟁탈하는 경쟁 구조 속에 연구력이 낭비될 우

12) 김기성, 「감성적 근대성의 공간적 전회」, 『사회와 철학』 제38호,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2019, 61쪽.

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과 해법 모색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감성적 불통(不通)에 연관한 사회적 문제의식을 학술과 교육의 공론장에 상정하고, 사회 현안에 대응하는 창의적 협업방안을 모색해본 결과가 다음과 같은 흐름의 이 수업 구안이다.

〈표 1〉 감성의 동학 탐구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소통 프로그램 설계 수업의 구안 사례

주차	학습 내용
1	〈제1장〉 전 지구화 시대와 감성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소개 ■ 현대 사회의 새로운 과제, 전 지구적 소통 ■ 단절의 문제를 해결하는 감성공동체
2	〈제2장〉 감성과 소통의 이론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감성과 공감장(共感場) ■ 매체와 커뮤니케이션
3	〈제3장〉 공감과 담화의 도구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적 담화의 종류와 구조 ■ 담화프로그램 구안의 사례와 특성 ■ 커뮤니티 구성의 사례와 특성
4	〈제4장〉 현안 분석과 대안 탐색의 실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항 : 폭력 ■ 국가폭력, 가정·아동폭력, 성·데이트폭력, 언어·온라인폭력 등의 사례 ■ 분석과 탐색 - 인문학 텍스트 탐독(문학)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항 : 혐오 ■ 젠더 혐오, 세대 혐오, 인종 혐오, 문화 혐오, 지역 혐오 등의 사례 ■ 분석과 탐색 - 인문학 텍스트 탐독(철학)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항 : 편견 ■ 이주민 편견, 젠더 편견, 지역 편견, 이데올로기적 편견 등의 사례 ■ 분석과 탐색 - 인문학 텍스트 탐독(역사)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항 : 허무 ■ 무감, 무기력감, 우울감 등의 사례 ■ 분석과 탐색 - 인문학 텍스트 탐독(문화예술)

주차	학습 내용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항: 죽음 ■ 자살, 실해, 사형, 질병 등으로 인한 죽음의 사례 ■ 분석과 탐색 - 자연과학 텍스트 탐독(의과학)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항: 노동 ■ 휴수저 계급론과 프리카리아트, 다종의 갑질, 사물인터넷(IoT)시대의 직업 등 노동 관련 사례 ■ 분석과 탐색 - 사회과학 텍스트 탐독(사회학)
10	<p>〈제5장〉 소통 프로그램 구안과 적용의 실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항: 진실 ■ 역사적 오명과 진실규명의 문제, 오월 광주와 세월호 참사 등 사회적 진실에 얽힌 문제의 사례 ■ 구안과 적용 - 감성공동체(역사팀)의 문제해결방안 설계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항: 희망 ■ 극한의 상황과 생명의 탄생, 인간의 한계 극복, 집단지성의 발휘, 초국적 연대(한류) 등 사례 ■ 구안과 적용 - 감성공동체(문화예술팀)의 문제해결방안 설계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항: 슬픔 ■ 난민의 죽음에 대한 전지구적 애도, 전통적 장례문화(애도의 감성에 관한 고전시가), 이별을 대하는 시대별·성별·지역별 특색 등 사례 ■ 구안과 적용 - 감성공동체(문학팀)의 문제해결방안 설계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항: 분노 ■ 촛불집회와 공감장, 사형 집행·군가산점제·(언론의)징벌적손해배상제에 관한 찬반 논쟁 등 사례 ■ 구안과 적용 - 감성공동체(사회학팀)의 문제해결방안 설계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항: 사랑 ■ 가족과 함께 하는 삶이 주는 것, 인간의 (최)우선적 가치, 소규모 마을 단위 간의 미래적 연대 등 ■ 구안과 적용 - 감성공동체(철학팀)의 문제해결방안 설계
15	<p>〈기말고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주차별 수업을 통해 감성적 불통의 현안을 발견하고 인문학 텍스트를 통해 비판적 사고를 구체화한 후, 개별·팀별로 모색해 본 문제해결의 대안을 온라인에서 공유 가능한 형태의 디지털데이터로 구성하여 SNS, 단체채팅방, e-class 등을 이용해 게시, 기말고사 당일 전체 프로그램 시연 및 피드백 참여

위 <표 1>의 주차별 학습 흐름은 개괄적으로 볼 때 ‘진단-탐색-구안-실행’의 기능을 하는 네 부분으로 나뉜다. 1~3주차에는 주로 감성인문학과 커뮤니케이션학의 이론 및 담론 탐색을 통해 참여자 스스로 사회적 현안을 발견하거나 설정하며 그 의식적 배경을 공유한다. 4~9주차에는 ‘폭력, 혐오, 편견, 허무, 죽음, 노동’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명징한 공감의 징후나 폭발적 감성 발현이 나타난 실증적·역사적·문학예술적 사례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감성 관련 인문학 텍스트들에 담긴 사유를 빌려 각 사례와 관련한 감성의 작동 방식에 관해 토론하고 불통의 문제가 발생하는 구조의 요체를 발견하기 위해 비판적 분석을 진행한다. 10~14주차에는 앞서의 탐색 과정에서 각기 선정한 감성의 현안 분야로부터 구체적인 소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른바 소통을 위한 감성 자원을 발굴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하반기 과정에서는 ‘진실, 희망, 슬픔, 분노, 사랑’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역시 학술 텍스트를 기본으로 한 대안적 사유 탐색을 진행한다. 즉 이 시기에는 불통의 구조적 혹은 내용적 원인으로 분석한 결과에 대안이나 대항적 기능을 할 사유 자원을 발굴한다. 하지만 이때 주안점을 두는 것은 그 발굴하고 선별한 자원을 자신의 일상에 적용할 고유한 형식적 틀을 구상하고 기획해가는 데 있다.

유사한 측면에서, 수업의 전 과정에서는 가령 감성인문학 분야의 공동연구 결과로서 각 학술 텍스트를 사유의 계기나 토론의 자료로 삼되, 그 독해와 분석의 대상 자체가 수업의 주안점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였다. 각 참여자의 특수한 경험과 비판적 시각을 스스로 의미화하고 수업 현장이라는 발화의 기회를 차용하여 사회적 연결성을 체험하는 데 수업의 초점을 두어야 했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설계를 위해서는 자기목적성, 발화 동기 등 자발적 참여 의지가 관건이 된다. 이 수업에서는 이론적 탐구과정 자체가 자기서사 발화와 사회적 참여의 체험장이 되도록 하는 기능을 담보하고 있다. 곧, 참여자로 하여금 발언권 부여가 확대되어 능동성을 발휘해야 하는 수업에 정서적 친밀감을 느끼고 자발적 동기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교수자의 과업이 된다.

III. 감성의 현안 탐구와 해법 모색의 참여 효과: 소통 프로그램 설계 수업의 실제

환기하자면 이 소통 프로그램 설계 수업은 궁극적으로 학술연구, 조직사회의 측면을 포괄한 일상의 총체적 영역에서 감성과 연관된 단절과 폭력의 문제를 검토하고 그 해법과 대안을 사회적으로 환원시키는 실천적 논의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기획물이다. 이 기획 속에서 감성의 현안을 관찰하거나 이해하여 자신의 대안적 견해를 발화하기 위해서는, 그 현안이 내밀한 자기서사에 관한 것이든 역사적으로 체험된 집단서사에 관한 것이든 학습과 관찰을 통해 인지한 객관적 서사이든 공감이나 추체험의 단계를 경유해야만 한다. 또한 모종의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에서는 먼저 어떤 문제들에 시선을 두고 그 심층함에 공명하거나 동의해야 하며 치유, 소통, 성찰 등의 힘을 지닌 감성 자원을 스스로 탐색하고 선별하여 프로그램에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수업 과정에서는 행위의 동인으로 작동하는 고유한 감성적 체계 속에서 실제 살아가는 당사자로서 참여자 자신의 경험과 의식을 지속적으로 반추하고 공유하며 상호 피드백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내용과 주안점이 설정되었다.¹³⁾ 즉 참여자들이 감성의 사회적 현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13) 이러한 수업 주안점은 통근대성(transmodernidad)을 지향하는 두셀의 해방 기획과 그 목적성에 대한 동의를 바탕으로 한다. 두셀은 근대성 신화 속에서 양산된 변두리성 현상에 주목한다. 그것은 중심자본의 변두리에서 노동 경쟁에 의해 열악하고 불공평하며 폭력적인 면모를 심화하는 주변부 룰렛의 생태와 그 확장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해방 기획은 이에 대한 대항 담론의 일종으로, 추상적인 보편성이 아니라 구체적인 세계성을 구축하는 작업이다. 해방 철학에서는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의사소통 공동체에 타자의 이성이 자리 잡고 이상적인 담화 상황이나 선형적인 의사소통 공동체의 차원에서도 타자성을 존중하게 되는 것을 지향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상호주관적인 담론과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강조한다(엔리케 두셀, 『1492년 타자의 은폐: '근대성 신화'의 기원을 찾아서』, 박병규 역, 그린비, 2019, 226~228쪽). 이 수업에서 자기서사 통찰과 발화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이유는 바로 내면의 타자성을 확인하고 자신

자발적 참여와 발화 동기를 확보하게 되는 조건으로 수업 구안 시 고려한 점은 바로 이러한 공감과 공명의 체험적 적층 기회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배경에서, 다음 <표 2>와 같은 운영 방법과 규칙을 적용하여 수업의 형식을 마련한 후 참여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자발적 참여 동기와 능동성 확보가 관건이 되는 프로젝트형 수업에서는 형식적 측면에서 규칙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참여자가 직접 참여하는 등, 수행 과정에서 발언권을 동등하게 분배받고 자기결정권을 지닐 수 있다는 동반자적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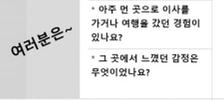
<표 2> 참여자의 자발적 동기 확보에 주안점을 둔 수업의 형식 및 평가조건

수업방법의 세부 기술	평가활동의 공통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수업은 크게 ‘강의+발표’의 형식으로 구성되며, 각 주차별 수업에서는 감성 및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이론 강의와 문제해결학습을 위한 팀 구성 활동을 병행함 ■ 각 주차별 강의에서 교수자는 ‘문제 제시-이론 학습-문제 분석-해법 탐구 및 대안 제시-상호 피드백-결과의 사회적 환원방안 구상’의 순서에 따라 패킷 단위의 문제해결방식 탐색과정을 운영함 ■ 기말에 이르기까지 각 학습자는 개별·팀별 문제해결방식 탐구과정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실제 자신의 삶 현장에 적용하거나 사회적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간에서 열람 가능한 형태로 가공한 결과물을 분반 내에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해결구상 및 대안 제시의 과정을 공동으로 진행할 팀을 구성한 후) 학기 내 ‘팀 발표’ 1회, ‘개별 발표’ 1회를 의무 수행 ■ 중간고사는 개별 과제로 대체하고, 개별 발표는 개별 과제를 분반 내 공유(공유하는 방식은 ‘e-calss 토론방 게시/현장 순차 발표’ 중 분반 내 협의하여 선택)한 후 상호피드백하는 방식으로 진행 ■ 수업참여도는 개별 및 팀 발표 시 청중과 팀원의 평가를 수렴하여 교수자가 평가함 ■ 평가항목별 점수의 비율은 분반 내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음(예, 수업참여도를 20%으로 상향조정하여 팀 간 상호피드백 점수를 반영) ■ 1회 결석 시 출석점수 1점을 차감하며, 전체 수업일의 1/4을 초과하여 결석하는 경우 학점 불인정

의 구체적인 세계성을 스스로 구축하도록 하는 목적에 있다.

위와 같은 수업의 형식적 절차에 따라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은 소통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시연 단계 이전까지 소통의 감성 자원을 공동 수집, 분석, 평가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각 참여자는 개별적 전공 영역이나 직업, 일상의 필요와 요구, 주목하는 사회적 현안, 연구 생애의 한 시점에서 자신이 주목하고 있는 학술적 과업 등을 두루 고려하며 소통 프로그램의 주제와 자원을 선정하였다. 물론 교수자의 프로그램 예시 안이 먼저 분반 내에 공유되고 시연과 활동을 거쳤으나 그 예시 안이 일종의 구현 모델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당 프로그램 구성의 고유한 배경을 함께 공유하였다. 그 결과, 단 한 건의 프로그램도 형식과 내용의 측면에서 중첩되지 않으면서 각 참여자의 고유성이 발현되는 다양성이 확인되었다. 동시에 감성의 동화와 사회적 현안에 관한 공동 탐구의 내역이 반영되며 사회적 보편성을 함의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표 3〉 참여자별 소통 현안 및 감성 자원을 바탕으로 설계한 프로그램들의 사례

구분	소통의 현안	감성 자원	프로그램 구성
참여자 A (한국 고대사 전공)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드는 혐오와 차별	정서 단어, 차별 인식을 드러내는 실험 영상, 집단 따돌림 경험의 정서를 드러내는 인터뷰 영상 및 기사문, 단일 민족의 환상에 의문을 제기하는 역사적 인물들의 사례, 다문화 가정의 연예인들 사례 등	   
참여자 B (상담 심리)	공감 대화로 마음 잇기 :	감정의 유사 단어, 감정 관련 이론 (Paul Ekman, William Glasser),	 

구분	소통의 현안	감성 자원	프로그램 구성
전공	소통을 위해 감정과 친해지기	감정 관련 영화 (『인사이드 아웃』), 감정카드, 감정 나무 모형, 필기류 및 포스트 일과 스티커 등 문구류 등	
참여자 C (조경·원예학 전공)	감성 치유 원예프로그램: 나의 꽃은 무엇일까?	꽃말과 작물 특성 등 이론 자료, 편견과 고정관념에 관한 견해 제시 슬라이드, 꽃 사진, 꽃 관련 스토리텔링을 위한 개인 사진 자료, 꽃바구니 재료, 문구류 등	
참여자 D (학교 심리 전공)	청소년들의 자기 정서 읽기 수업: 동화책을 활용한 분노의 마음 표현 활동	느낌말 카드, 의미 카드, 색칠 도구, 동화책 (『나 진짜 화났어!』 (폴리 던바, 2019), 『마음이 그랬어』 (박진아, 2018)), A4용지 또는 도화지 등	<p>(순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가 났던 상황을 떠올려 본다. 2. 자신이 느꼈던 분노를 원하는 색깔을 사용해서 그린다. 3. 그림을 설명한다. 4. 화가 났을 때 떠올랐던 생각들을 그림의 여백 혹은 뒷장에 실컷 적는다. 5. 생각들을 말한다. 6. 생각들에 담겨 있는 의미를 찾아 본다.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삶의 의미 등등(이때 의미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7. 지금 느낌이 어떤지 살펴본다(이때 느낌말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8. 자신이 찾은 의미를 위해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내가 할 수 있는 것 ② 상대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 ③ 공동체에 제안하고 싶은 것을 찾아 본다. 9. 작업 후 지금 어떻게 확인한다.

구분	소통의 현안	감성 자원	프로그램 구성
<p>참여자 E (지역학 전공)</p>	<p>전국 소통 대회: 우리 지역의 '시내'는 어디인가요?</p>	<p>지방 인식을 보여주는 영상 자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및 QR코드 등 디지털접속 도구, 온라인 사전 토론 자료, 지역의 각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 등</p>	<div style="text-align: center;">  <h2 style="margin: 0;">전-국 소통 대회</h2>  <p style="font-size: small; margin: 5px 0;">출처: 스토리보드. <시내가 사라져요> 개발 자원은 로존이는 시정 시내(서울시도민회)</p> <h3 style="margin: 0;">우리 시내 공감대회</h3> <p style="font-size: small; margin: 5px 0;">우리 지역의 '시내'는 어디인가요? 자랑거리, 추억거리, 푸념 등등을 보내주세요!</p> <p style="font-size: small; margin: 5px 0;">※ 입장 시 주의사항 타 지역에 대한 비방 금지 자니진 과용입은 NO! <</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h2 style="margin: 0;">대회 참여 방법</h2> <p style="margin: 5px 0;">첫 번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입장!</p> <p style="font-size: small; margin: 5px 0;">인명으로 입장하여 출신지역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남기세요.</p> <p style="margin: 5px 0;">두 번째, 공감 가는 이야기에는 반응해주세요.</p>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font-size: small; margin: 5px 0;"> 공감! 오전 3:50 </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p style="font-size: 2em; font-weight: bold; margin: 0;">*</p> <div style="border: 2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padding: 10px; display: inline-block;"> <p style="margin: 0;">그리고 세 번째, "시내가 사라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p> </div> </div>

구분	소통의 현안	감성 자원	프로그램 구성
<p>참여자 F (사회 복지학 전공)</p>	<p>좋은 죽음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 웰다잉 프로그램</p>	<p>자기서사 스토리텔링을 위한 개별 자신 자료, 인생회고 그림 활동지, 유언장 및 묘비명 쓰기 활동지, 사전의료의향서, 장수사진 (영정사진) 찍기 활동 미디어, 필기류 등</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bottom: 10px;"> <p style="text-align: center;">나의 유언장</p> <p>- 이것은 미리 쓰는 유언장의 기본 형식입니다. - 이 외에도 자유롭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쓰시면 됩니다. - 반드시 자필로 기록하시고 도장을 찍으셔야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 필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명, 연월일, 정소는 필수 기입사항입니다.</p> <p>*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작성일 : 년 월 일 * 작성장소 :</p> <p>● 사랑하는 사람들(나의 배우자, 자녀들, 친구, 친지들)에게 남기는 말</p> <p style="text-align: center;">- 5 -</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 style="text-align: center;">내가 꿈꾸는 장례식</p> <p>● 나는 사후에 1) 장례식을 하겠다 2) 장례식을 하지 않겠다. 3) 만약에 장례식을 하지 않겠다하면...</p> <p>● 장례식 형식은 1) 전통적인 장례식으로 하길 원한다. 2) 나는 종교인으로서 ()식으로하기를 원한다. 3) 장례식에는 조문객이 적은 상복을 입지 않고 평상복으로 한다. 4) 내 가족이 하는데로 그냥 다 맡기겠다.</p> <p>● 장례식 규오는 1) 장례식은 간소하게 가족과 친지, 친구와 하고 싶다. 2) 최대한 성대하게 하고 싶다.</p> <p>● 장례식의 장소는 1) 장례식 기간 동안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면 좋겠다. 2) 영결식에는 나의 삶의 감동이 될 동영상 보여주면 좋겠다. 3) 기타 원하는 것</p> <p>● 장례 (영결식 후) 1) 매장하겠다. 2) 화장하겠다. 3) 화장 후 수목장(자연장) 하겠다.</p> <p style="text-align: center;">- 6 -</p> </div>

수업 과정에 참여한 이들은 감성인문학 관련 학술적 탐구를 진행하는 초기 주차부터 감성과 소통의 원리를 고찰하는 현안 분석의 단계를 거쳐, 대안적 감성과 소통의 기제를 발굴하고 각 일상의 다양한 요구와 자원을 반영한 소통 프로그램을 위 <표 3>¹⁴⁾과 같이 설계하였다. 그리고 이 전 과정을 관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효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이 수업이 참여자 내면을 구성하는 감정, 견해, 시각, 요구 등 의식의 여러 요소를 객관적으로 발현하고 상호 관찰하도록 하여 자기 탐구와 통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참여자들은 소통 프로그램 설계라는 다소 낯설고도 사회적 책무감이 부여된 과업을 맞이했을 때 외부 환경과 구조에 대한 관찰자적이고 비평가적인 시각을 돌려 자신의 생애와 서사를 성찰하는 데 행위의 동력을 새로이 사용할 수 있었다. 수업 과정에서는 온라인 학습 공간을 모니터로 공유하는 가운데 각각의 감성적 현안에 관한 자신의 사유를 메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론과 피드백을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이 감성이라는 보편적 소통의 기제를 매개로 공감과 공론의 장에 끌어당겨진 이후에는 자신의 각 일상에서 가장 강력한 정서적 힘을 지니는 사건이나 기억을 관련지으며 그 현안에 대한 당사자성을 체험하게 되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각 참여자들에 의해 선택되어 각각의 사건과 서사들이 발화되었을 때, 이 바깥으로 꺼내어진 내면의 기억을 객관적으로 다시 확인하거나 재구조화할 수 있도록 의미 작업의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즉, 이때 교수자를 비롯한 수업 구성원들은 평가나 제언, 또는 공감과 동일시의 양태가 아니라 객관적 대상화 상태를 유지하면서 발화 내용의 학술 가치를 도출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그것은 예를 들어 '이형태의 반복적 반영, 감성의 작동 원리 고찰,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실증적 지점 발굴

14) 여기서 각 프로그램의 구성을 보여주는 자료들은 시연 과정에서 활동 참여자들이 실제 사용하기 위해 만든 활동지나 진행 순서를 안내하고 활동의 이해를 돕는 정보 슬라이드 등의 일부이다. 즉 이것은 각 소통 프로그램의 전체적 설계 안을 담고 있지 않다. 참여자별 고유한 관심사나 전공 영역, 소유 또는 발굴한 감성 자원 등에 따라 접속 및 발화의 장이 이처럼 다양하게 구상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전거로 제시한 것이다.

등'의 양상으로 실행될 때 유효한 반응을 얻을 수 있었다.

둘째, 이 수업은 우리 사회의 감성적 현안을 보다 당사자적 입장에서 한 층 전문적으로 논의하며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공론·공감의 장으로 기능하였다. 수업에서는 연쇄적 피드백과 감성적 중립성,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학술적 목적성 등이 참여자들의 발화 체험과 함께 적층되면서, 지금껏 내적 공간에 은폐되었거나 사유화 이후 용도 폐기되던 경험적 서사들이 감성과 소통의 생생한 연구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되었다. 대학을 삶의 환경으로 삼고 학업과 연구가 일상의 긴밀한 부분이 되는 연구자들에게 이 수업은 자기 탐구와 발화의 경험이 가능한 성찰의 장이 되었다. 동시에 이 수업의 참여 행위 결과가 곧 감성의 동학이나 소통 체계의 탐구를 위한 학술적 자원 내지는 상호 변화의 동력이 되었다. 이 양 측면을 아울러 볼 때 이 수업은 학술-일상의 영역을 연계하며 사적(私的) 감성을 공공성의 측면에서 자원화하는 작업이었다.

셋째, 이 수업에서는 자발적 참여 동기 확대에 주안점을 두면서 자기서사와 분석적 사유를 구조화하여 발화하는 수행을 주된 활동으로 하였는데 이로써 참여자들은 지금까지의 인식과 감성의 기준을 확인하고 변용하게 되는 계기를 얻었다. 말하자면 의미 구성과 발화의 주체로 행위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고유한 경험과 서사, 감성, 인식, 역량 등이 감성 탐구를 위한 학술자원으로 가공되는 과정을 체험하게 되면서 삶의 가치를 판별해 온 공고한 기준을 재평가하게 된 것이다. 참여자들의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형태와 자원을 활용하면서도 공통적으로 자기서사 탐구와 가치 기준의 이동이 경험되도록 하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중심-주변의 이원화된 시각과 공고한 경계 의식에서 비롯될 수 없는 관점의 이동과 자기 발화의 실현 양상이었다.

넷째, 이 수업의 참여자들은 전 지구적 현재를 의식의 지각변동이나 디지털미디어를 매개로 한 경계 초월적 상호작용의 시대로 인식하면서 융합적이고도 지역 착근적인 지식 커먼즈 구성에 동의하고 있었다. 즉, 각 삶의 특수한 서사를 반추하는 동시에 사회적 현안과 연계한 사유를 통해 '보편적

감성에 의한 연결성¹⁵⁾을 확인하면서 그 활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상호 접촉의 장치, ‘소통 프로그램 안’들을 사회적 공유 자원으로 집적하고 일상에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동기는 계층화된 구조 속에서 우월한 지위를 갖고 한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전문 지식의 공급 시장과 별개로, 당면한 삶의 요구와 자원을 일상의 현장에서 서로 확인하고 주고받기 위한 공유지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 연계되었다.

각 프로그램은 문제의식 공유와 공감 작용, 대안적 사고와 감성 자원 공급의 기능을 하도록 구안하였지만 그 형식적 양태는 공통적으로 ‘접속하는 행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즉, 소통 프로그램이 내적 자아 성찰이나 간체적 교류 활동을 담고 있는 경우일지라도 프로그램에 내재한 소통의 원리는 학교, 직장, 이웃 등 사회적 군소집단의 단위와 국가, 젠더, 인종 등 거시적 관계망에 두루 적용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1인 미디어 시대로 진입한 오늘날 역시, 우리는 미디어를 활용한 자기 발화의 기회를 누리기보다 지식 생산과 소비의 자장 속에 콘텐츠 컨슈머로 포섭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거대 미디어를 매개로 가공과 유통의 단계를 거쳐 후광 효과에 힘입은 전문 지식은 생산부터 소비에 관여하는 당사자들의 삶을 이윤 창출의 구조 속에 속박하는 방식으로 약탈성에 결부되곤 한다. 중심과 대비된 주변으로서 지역 인식, 타자적으로 구성되고 고착화된 지역 정체성, 단일한 기준과 발달사적 세계관에 의해 계층화된 지역 문화, 이처럼 경직된 경계들의 구획 속에서는 중심과 상위를 향한 무한 경쟁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특히 생존

15) 이 감성에 의한 연결성은 관계의 불특정한 범주와 무한한 변화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 소통의 자원이다. 비판지리학자이자 대표적인 공간연구자인 매시는 그간 자본주의 작동에 의해 구조적으로 생산되는 보편적 현상으로서 ‘계급관계’를 분석해왔는데, 그는 그것이 다른 관계들과 접합되는 양상이 특정한 시공간적 맥락에 따라 변화하며 그 특정한 맥락을 가리켜 장소라고 말한다(도린 매시, 『공간, 장소, 젠더』, 정현주 역,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10쪽). 이 사유에 따르면, 어떠한 공간이 특수한 장소가 되는 것은 특정하게 조합되는 관계의 상호작용에 따른 결과가 된다. 계급관계 속 권력과 타자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 감성에 의한 연결의 장이 분기할 때, 어떠한 관계를 만나고 선택하여 조합하며 상호작용하게 될 것인지의 가능성과 범주는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의식을 바탕으로 한 경쟁의 지속은 경쟁의 맥락을 도외시하는 맹목적이고 무비판적인 일상을 획일적으로 확대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고려할 때 이 수업은 로컬 단위 지식의 자발적 공유지를 구성할 때 다채로운 지역 소통 방안을 제안하는 문화 전환 운동의 일환이자, 당면한 일상에서 접경의 발화 행위를 주재할 주체를 양성하는 대안적 지역 활동으로서도 의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IV. 나가며 : 발화하는 존재, 이동하는 경계

우리의 일상이 펼쳐지는 삶의 토대로서 지역은 이미 구조화되어 인식의 지평 위에 고착된 정체성과, 끊임없이 발생하는 새로운 서사가 교차하며 횡단적 지역성(trans-locality)을 창출해낸다. 이 혼종성은 개인의 내적 공간, 즉 표상과 의미화를 일삼는 사유의 공간 속에서 피상적으로 인식되고 지나쳐오기 마련이다. 문제는 이러한 체험적 인식이 보다 진지하고 긴밀하게 다루어지거나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이해되지 못한 채 적층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지역의 생태와 자원을 공유하는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발언권과 소통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채 낮은 혼종성과 변화에 대처하는 방식은 보통 사회적 냉소나 둔감화, 대중적 가치 기준의 맹목적 수용과 구조 편입을 위한 경쟁적 노력 등으로 나타난다.

이 글에서는 이처럼 가치 기준과 경계 인식의 이질성이 때로 충동적이고 파괴적으로 발현되는 불통의 양상을 해결하기 위해 대면과 청취, 경험과 소통을 위한 도구적 장소가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이 글의 관점에서는 의식과 실체의 측면을 아울러 지역의 경계를 초월하며 접속하는 오늘날의 사회상 속에서 지금까지 지녀 온 경계 인식이 경직성과 계층적 분할 기능을 지니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요구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적 공공성을 지니고 있으며 학술-일상의 순환 체계를 마련하여 연구의

심화와 사회적 환원을 이룰 수 있을 효율적인 장소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장소로 본문에서는 대학의 교양 수업 현장을 제안하고 그 활용을 위해 C대학의 대학원 핵심역량교과 기획과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 과정에서, 감성의 동학 탐구가 사회적 현안에 개인을 몰입시키며 당사자적 관점에서 공감과 공론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수업 참여 효과를 확인하였다. 참여자들은 보편적 소통의 도구로서 감성이 지니는 공명 효과를 체험하였고, 자신의 견해와 감성을 스스로 대상화하여 관찰하고 발화할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구조화하는 과정에서 자발적 참여 동기를 확대하였다. 즉, 수업의 과정 자체가 참여자들에게 발화 기회를 통한 자기 객관화와 공동 성찰을 통한 재의미화의 체험 기간이 되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감성인문학적 논제나 사회적 현안에 대한 감성 담론을 매개로 사회적 소통을 위한 대안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것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학술적이고 사회적인 책무감과 기여 의식을 지니고 프로그램 설계와 운영의 주체로서 자기 인식을 갖출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이러한 목적적이고 중립적인 인식은 공감과 공론의 체험 과정에서 자칫 사회적 현안에 대한 관찰자적 시좌에 머물게 되거나 자기서사의 무목적 공유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감성적 소진 혹은 두려움을 예방하도록 하였다. 무엇보다 참여자들은 각각 다양한 일상의 영역과 관심사, 배경지식(schema) 등에 바탕을 둔 접속과 발화의 방식을 구상하게 되었고 상호 피드백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지식 자원의 공동 생산과 공동 소비를 이행하는 로컬 단위 커먼즈를 제안하는 데 이르렀다. 이러한 참여 효과들은 대학의 수업 현장이 고정된 가치 기준을 객관적인 논의의 장에서 공동으로 다루어 볼 집단적 인식 전환의 기회이자, 융합적 접속과 소통의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보편적 집결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본고에서 프로그램 설계 수업을 통한 소통 효과의 발현 범위를 개인의 내적 측면이나 지역문화 간 교류의 측면 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다층적인 측면에서 함께 검토한 이유는 지역민으로서 우리가 사실상 로컬을 끊임없

이 횡단하며 살아가는 '유동하는 정체성의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소통 효과의 다층성을 허용할 때 수업 참여자들이 다양한 시공간의 사유들과 자유롭게 교섭하며 프로그램 자원을 수집하고 탐색할 동기를 얻게 되었고, 그로부터 지역성의 현재를 만들어가는 주인으로 사회적 발언과 행위의 권력을 분배받을 수 있다고 여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편으로, 경계 의식의 전환과 전지구적·보편적 소통을 위한 감성인문학 연구의 사회환원적 수행 방안으로서 수업 활용 효과를 검토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수업 참여자들은 감성인문학적 이론과 주요 논제들을 탐구하는 단계를 거쳐 각기 삶의 현안을 재발견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설계의 도입 과정에서 감성인문학이라는 범주의 학술적 논의들이 수렴할 지식이 아닌 발상과 토론의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지역은 삶의 체험적 서사가 펼쳐지는 보편적 토대를 가리키며, 고정된 경계 인식에 따라 중심-주변으로 그 위상이 지정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고유한 생태 환경을 배경으로 하여 오랜 전통으로 이어진 삶의 방식이나, 역사적 체험을 의미화하고 기록·기억하는 집단적 의례에 따라 특수한 정체성을 함의하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역의 그러한 특수성은 매 순간 삶의 서사를 갱신해가는 지역 향유자에 의해 비로소 발견되고 의미화될 수 있다. 즉, 지역을 횡단하거나 삶의 거점으로 향유하는 어느 고유한 개인의 수용 양상에 의해 지역의 특수성은 언제나 재의미화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은 인간의 자기서사 혹은 집단서사가 펼쳐지는 바탕으로서 보편성을 지닌다.

단, 이러한 특수성과 보편성의 공재는 지역의 향유자가 자신의 감성과 인식의 세계에 창조되는 의미를 소통 가능한 메시지로 구조화하고 발화로 표명할 때 가능해진다. 그렇지 않고 침묵의 상태가 지속될 때, 접경에서 이 질성이 가시화되거나 상호작용하지 않은 채 포섭과 배제의 원리 속에 경계의 힘이 고착화될 때, 발화와 번역의 시끄러움이 분권의 일환으로 지지받지 못하고 합리적 효율성을 위시한 맹목적 사회체계 속에서 평가 절하되거나 억압받을 때 지역의 주변화와 계층화는 질주의 한계를 곧 확인하게 될 것

이다.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발화 행위, 이것은 삶의 다양하고 특수한 요구들과 함께 보편적으로 활용 가능한 자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드는 최소한의 실천이며 사회적 소통과 경계 인식의 전환이 시작되는 원점일 것이다.

후속 연구 과정에서는 전 지구적 횡단성과 지역 보편성에 주목하며 탈경계적 발화 행위를 지원하는 거점으로서 로컬의 각 장소를 발굴하고 이들의 사회적 연결망을 탐구하는 작업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더욱 실증적이고 실용적인 차원에서, 대학 수업 이외의 다양한 접속 장소와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전거를 확보해 갈 필요가 있다. 이것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교육과 학술연구 조직에 요구하는 바, 사회적 환원과 로컬 상생의 방향에 부합하는 연구과제일 것으로 여긴다.

참고문헌

- 김기성, 「감성적 근대성의 공간적 전회」, 『사회와 철학』 제38호,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2019.
- 박만준, 「지식의 융합과 경제적 사유」, 『철학연구』 제116권, 대한철학회, 2010.
- 정운채, 「문학치료와 자기서사의 성장」, 『우리말교육현장연구』 제4권 2호,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010.
- 도린 매시, 『공간, 장소, 젠더』, 정현주 역,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 디페시 차크라바르티, 『유럽을 지방화하기: 포스트식민 사상과 역사적 차이』, 김택현·안준범 역, 그린비, 2014.
-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웅진주니어, 2004.
- 박진아, 『마음이 그랬어』, 노란돼지, 2018.
- 산드로 메자드라·브렛 닐슨, 『방법으로서의 경계』, 남청수 역, 갈무리, 2021.
- 엔리케 두셀, 『1492년 타자의 은폐: ‘근대성 신화’의 기원을 찾아서』, 박병규 역, 그린비, 2019.
- 전남대학교 감성인문학연구단, 『공감장이란 무엇인가: 감성 인문학 서론』, 길, 2017.
- 테사 모리스-스즈키, 『변경에서 바라본 근대: 아이누와 식민주의』, 임성모 역, 산치림, 2006.
- 폴리 던바, 『나 진짜 화났어!』, 김효영 역, 비룡소, 2019.

접 수 일 : 2023년 08월 21일
심사완료 : 2023년 09월 13일
게재결정 : 2023년 09월 13일

Abstract

Border Exchange Plan Based on the Exploration of Emotional Issues

: Focusing on the Operation Case of the Communication Program Planning Class and its Participation Effect

Choe, Hyekyeong(Chon-nam University)

This study starts by paying attention to the ambivalent function of boundaries. It is seen that the border does not just cause a collision between the self and the other or the occurrence of the periphery, but becomes a source of power to realize decentralization and transformation through crossing and cultural exchange between the other and the local. In this study, the stratification of local consciousness that has continued to spread while establishing a dual consciousness structure of 'center-periphery' such as Western Europe and non-Europe, metropolitan area and non-metropolitan area, etc. is recognized as problematic.

Today's Korean society is at a point where, in addition to the awareness of the problem of non-communication, helplessness in communication is emerging as a new task. As a current issue of this era, it is inevitable to raise methodological research on crossing and access. Also it is necessary to search for a method of communication between cultures with heterogeneity, and to build a group of data on its realization and experiential effect. In this article, I tried to conceive of such a joint research and social return plan, focusing on the case of communication program design class at C University, and reviewed the effectiveness in

advance.

In other words, this article will be a review process that identifies what kind of realization aspects can be revealed when the demand for experiencing internal, social, and intercultural dialogue and communication is expressed based on voluntary needs and special life data. In this paper, it is analyzed how the class participants who designed some kind of communication program gained an opportunity for self-reflection and change from this process and derived various effects of access and communication through mutual discussion and participation. This analysis can be used to envision an expanded and circular university function so that universities in each local can be used as a gathering place for speech and emotional communication between local residents and locals beyond a space for classes.

[Key Words] communication, local studies, border, transversality, emotion, program planning